



MVPR-2008-45

VIP REPORT

2008. 12. 16.

■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와 시사점

-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필요하다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백흥기, 이장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와 시사점 -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i
1.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1
2.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	3
3. 정책적 시사점	9
■ HRI 경제 지표	13

1.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세계 경제위기로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8년 3/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대비 2.6% 감소한 28.7억 달러를 기록했다. 3/4분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종에 대한 투자가 30% 가량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미국發 투자가 57%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위기 여파로 당분간 더욱 위축 될 전망이다. UNCTAD는 2008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2007년(1.8조 달러) 대비 10% 감소한 1.6조 달러로 예상했다. UNCTAD의 세계투자전망(2008.9, 다국적기업 임원 대상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39%가 이번 금융 불안정이 이미 향후 3년간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워지고 있으나, 조속한 위기 극복과 회복기 빠른 도약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GDP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하락하여 2006년 기준으로 0.6%에 불과하다. 이는 싱가포르, 아일랜드,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는 잠재성장력 향상, 고용 창출, 선진 노하우 획득, 신성장 아이템 확보 등 부가적인 이점도 많다.

2.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

한국과 일본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은 1%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 보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게 적용가능성이 높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일인당 GNI 2만 달러 부근의 비교

(양적인 금액은 한국이 우위이나 절대적 우위는 비교 불가)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1988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32억 달러이며, 한국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2007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77억 달러이다. 이를 2000년 가치로 환산하면 일본 42억 달러, 한국 64억 달러로 금액으로는 한국이 우위이다. GNI 대비 비중으로도 한국 0.6%, 일본 0.2%로 한국이 우위이다. 그러나 1988년은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 세계화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절대적 우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만 달러 부근에서 일본은 증가, 한국은 감소) 2만 달러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2만 달러 도달 2년 전인 1986년 9.4억 달러, 1987년 22.1억 달러, 1988년 24.2억 달러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만 달러 도달 2년 전인 2005년 110.5억 달러, 2006년 110.2억 달러, 2007년 100.5억 달러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 이후에도 세계 경제위기로 외국

인 직접투자의 감소 압력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가 3만 달러 조기달성에 기여) 일본은 2만 달러 도달 직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평균 5.9% 증가하면서, 4년 만에 3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기여를 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일본이 3만 달러를 돌파한 1992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만 달러 시점보다 1.25배 증가했다.

○ 산업별(제조업과 서비스업) 비교

(2만 달러 돌파시점의 한국과 일본의 산업별 비중은 반대 구조)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은 74.7%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23.8%이다. 반면 한국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은 25.6%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72.4%로 일본과 반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88년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중심이 되던 시기이며 2007년은 '세계 경제의 서비스화' 등 서비스업이 경제에 중심이 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7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이 6.2%이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93.8%로 서비스업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일본은 3만 달러 시점에서 서비스업은 외국인 직접투자, 제조업은 내국인 투자로 육성) 일본의 경우 일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인 1992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39.3%, 서비스업 60.6%로 1998년과 비교하여 역전되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88년 24억 달러에서 1992년 16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8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4년간 무려 3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의 경우 일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서비스업의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기간 제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보다 자국 자본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 산업내 업종별 비교

(일본은 도소매와 사업서비스업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견인)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승한 시기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은 도소매와 사업서비스업이 견인했다. 도소매업의 경우 1988년 4.5억 달러(14%)에서 1992년 11.9억 달러(29%)로 금액대비 3배, 비중대비 2배 상승 했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988년 1.5억 달러(4.5%)에서 1992년 8.2억 달러(20%)로 금액대비 5배 비중대비 4배 상승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의 경우 1988년 6,100만 달러(1.8%)에서 1992년 1.4억 (3.5%)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국은 금융보험업의 비중이 높음) 한국과 일본의 2만 달러 시점에서의 서비스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도소매업의 비중은 한국 17%, 일본 14%로 유사하다.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한국 11%, 일본 4.5%로 한국이 약간 높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에서는 차이가 매우 크다. 한국의 경우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22%로 1988년 일본의 1.8%는 물론 3만 달러 시

점인 1992년의 3.5% 보다 6배 이상 높다. 이는 한편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투자 규제완화 등으로 한국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부실하기 때문으로도 설명된다.

(통신 등 고부가기술서비스업은 양국 모두 미약) 한편, 한국과 일본 모두 진입규제가 강하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는 통신업 등 고부가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통신업의 경우 일본의 1988년 비중은 1.2%, 한국의 2007년 비중도 0.3%이며, 그 이전과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이는 통신 서비스의 경우 양국 모두 국가 기간산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약이 크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정책적 시사점

경제 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투자 감소 추세를 극복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 증대 등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자본국 등으로 투자유치 대상을 다각화 하고 투자 절차도 간소화 하여야 한다.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22.3%), EU(41.2%), 일본(9.4%)가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투자여력 급감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동, 싱가포르 신흥자본국의 여유자본 등으로 투자 유치대상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윈스톱 행정 서비스의 강화, 투자 이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신속한 문제점 해결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지원청'(假稱)의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업 분야에 특화된 외국인 투자 유인책을 보강하여야 한다.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 기존의 각종 지원 대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 보다는 기술전수, 고용확대, R&D 협력 등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 업종 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 제외·제한 업종은 다소 광범위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외국인 투자 영역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로써, 법률, 의료, 교육, 회계 등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 분야의 대폭적인 개방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원·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의 주요 전략 기간산업과 국가 고유의 업무인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제한될 필요가 존재한다.

넷째, 외국인 투자 유인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자본 역차별에 유의해야 한다. 예로써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금산분리, 적대적 M&A 방어책, 등 글로벌 경쟁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지역 선 지정, 후 유치', '법인세 7년 감면', '공장부지 무상임대' 등의 무리한 지원책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와 시사점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1.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 미국발 금융위기로 외국인 직접투자 위축

- 2008년 3/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29.5억불) 대비 26% 감소한 28.7억불을 기록하였고, 금융보험업 투자와 미국발투자가 특히 감소
 - 상반기 투자를 견인했던 금융·보험업종의 투자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어 29.2% 감소
 - 미국발 투자 또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2008년 상반기 100.4%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3/4분기에는 56.9%의 큰 폭 감소

-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투자환경을 감안, 투자규모를 줄이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급속한 원화 절하로 달러 표시 투자금액이 감소되는 효과 발생
 - 1억불 이상 대형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7.2% 감소(1,316백만불), 1억불 미만 중소형 투자는 1.6% 증가(1,557백만불)
 - 2007년 말 대비 2008년 9.30일 원화의 對달러 환율은 22.3% 절하되어 1,000억 원 투자시 달러표시 신고액은 1억 659만 달러(1\$ = 938.2원)에서 8,285만 달러(1\$ = 1,207.0원)로 감소

○ 세계 경기침체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더욱 위축 될 전망

- UNCTAD, OECD 등은 미국 경제의 하강세, 금융시장의 혼란 등이 2008년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
 - UNCTAD(세계 투자 보고서, 2008.9)는 2008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2007년(1.8조 달러) 대비 10% 감소한 1.6조 달러로 예상
 - OECD(2008.6) 역시 2008년 OECD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7년 1.4조 달

러에서 2008년 1.0조 달러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

- UNCTAD 세계투자전망 (2008.9, 다국적기업 임원 대상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39%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 불안정이 이미 향후 3년간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

○ 세계 경제침체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으나, 조속한 위기 극복과 회복기 빠른 도약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적확대와 질적개선이 필요

- 한국의 GDP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하락세로 싱가포르, 아일랜드, 중국, 대만,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하여 열세
 - GDP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2%까지 도달한 이후 하락하여 2006년 0.6%기록
 - 싱가포르는 1999년의 20.1%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여 2002년 8.2%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06년 18.3%에 도달하였고 대만은 2.0%

<외국인 직접투자유입액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싱가포르	8.9	20.1	17.8	18.3	8.2	12.6	18.5	12.9	18.3
아일랜드	10.3	19.0	26.7	9.2	24.0	14.5	-5.8	-15.5	5.8
영국	5.2	6.0	8.2	3.7	1.5	0.9	2.6	8.7	5.9
중국	4.5	3.7	3.4	3.5	3.6	3.3	3.1	3.2	2.6
독일	1.1	2.6	10.4	1.4	2.7	1.3	-0.3	1.3	1.5
미국	2.0	3.1	3.2	1.6	0.7	0.5	1.2	0.8	1.3
한국	1.5	2.2	1.8	0.9	0.6	0.7	1.3	0.9	0.6
대만	0.1	1.0	1.5	1.4	0.5	0.1	0.6	0.5	2.0
일본	0.1	0.3	0.2	0.2	0.2	0.1	0.2	0.1	-0.1

자료: 『외국인직접투자가 설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08년 4월.

- 한국 경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국내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반드시 필요
 - 최근 전 산업에서 투자증가율이 정체되어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해외자본의 대규모 유입 필요성이 다시 높아짐

2. 한일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와 시사점

○ 일본과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 이유

-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1% 대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나라에 속함
 -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 보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게 적용가능성이 높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해 보아도 일본과의 비교는 유의미한 시사점이 가능

○ 일인당 GNI 2만 달러 부근의 비교

-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은 1988년으로 당시 외국인 직접투자는 32억 4,300만 달러임
 - 반면 한국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은 2007년으로 당시 외국인 직접투자는 77억 1,800만 달러 (도착 기준)
 - 이를 2000년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일본은 42억 6,700만 달러이며, 한국은 64억 2,600만 달러로 한국이 금액으로는 우위이며, GNI 대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한국이 0.6%, 일본이 0.2%로 한국이 우위

< 한일 간 1인당 GNI 2만 달러 진입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 >

(단위 : 백만 달러, %)

	1인당 GNI 2만달러 진입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명목)	외국인 직접투자 (실질)	GNI(실질)	외국인 직접투자 /GNI
한국	2,007	7,718	6,426	1,065,745	0.6
일본	1,988	3,243	4,267	2,588,443	0.2

자료 : OECD Stat., JETRO, 지경부.

- 아일랜드의 경우,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은 1998년으로 당시 외국인 직접투자는 88억 6,300만 달러임
- 98년 아일랜드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은 10.0%이며, 2003년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은 14.5%

< 주요 선진국들의 2만달러대 연평균 FDI 증가율 비교 >

	2만달러~3만달러시기 FDI 연평균 증가율	2만 달러 진입시점	3만 달러 진입시점
호주	13.0%	1995	2004
오스트리아	20.2%	1990	2003
덴마크	58.3%	1987	1995
핀란드	14.4%	1988	2003
프랑스	10.0%	1990	2003
이탈리아	21.2%	1996	2005(E)
일본	5.9%	1988	1992
네덜란드	12.6%	1991	2003
노르웨이	28.4%	1987	1995
스웨덴	12.2%	1987	1996
미국	19.7%	1988	1997

자료 : OECD, 한국은행.

- 주 : 1)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Statistics상의 Gross National Income at market prices 항목을 Total population으로 나눈 수치를 근거로 계산됨
- 2) 1993년 이전에 2만달러에 도달한 국가의 FDI는 자료의 한계상 94년부터 FDI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함.

- 일본과 아일랜드는 2만 달러 도달 직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각각 연평균 16.4%와 71.0% 증가하면서 매우 빠른 시간에 3만 달러에 도달
- 일본이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은 4년 후인 1992년이며, 이때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만 달러 시점보다 1.26배 증가

- 아일랜드가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은 6년 후인 2003년이며, 이때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만 달러 시점보다 8.31배 증가
- 일본과 아일랜드의 2만 달러 시점부터 3만 달러 시점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1.0%와 16.4%

< 일본 · 아일랜드 2~3만 달러 진입시점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 >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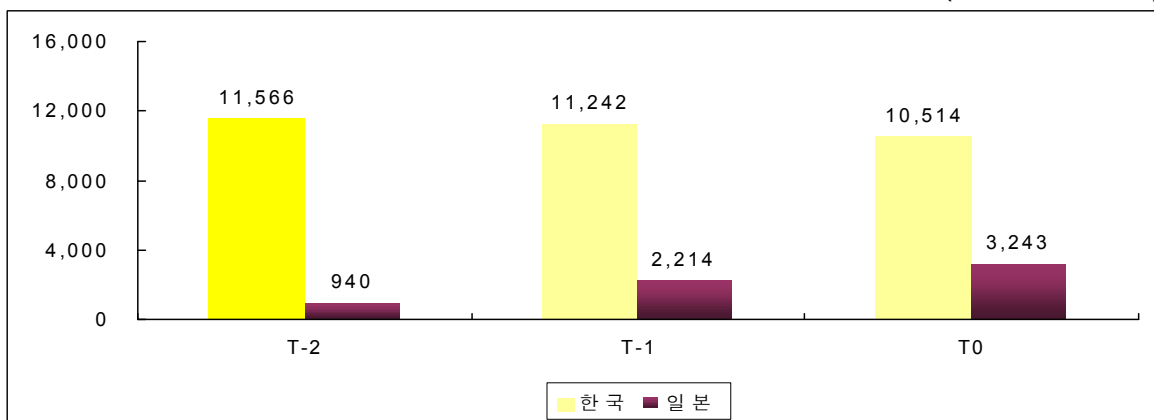
	2만 달러 진입시점		3만 달러 진입시점		증가율
	연도	외국인 직접투자	연도	외국인 직접투자	
일본	1988	3,243	1992	4,084	125.9
아일랜드	1997	2,743	2003	22,800	731.2

자료 : OECD Stat.

- 2만 달러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일본은 2만 달러 도달 2년 전인 1986년 9억 4,000만 달러, 1987년 22억 1,400만 달러, 1988년 32억 4,300만 달러로 증가 추세
- 반면 한국의 경우 2만 달러 도달 2년 전인 2005년 115억 6,600만 달러, 2006년 112억 4,200만 달러, 2007년 105억 1,400만 달러로 감소 추세

< 한일 간 1인당 GNI 2만 달러 인근 시점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비교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JETRO, 지식경제부.

- 2008년에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하여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1사분기 27억 달러, 2사분기 18억 달러, 3사분기 28억 달러이나 4사분기에 외국인 투자 감소가 전망됨

○ 산업별(제조업과 서비스업) 비교

-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은 74.7%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23.8%임
 - 반면 한국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조업 비중은 25.6%이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72.4%
 - 한편, 2007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제조업의 비중이 6.2%이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93.8%로 서비스업이 압도적 우위

< 한·일 간 1인당 GNI 2만 달러 진입시점의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구성 >

(단위 : %)

	한국(2007)	일본(1988)	일본(2007)
제조업 외국인 직접투자	25.6	74.7	6.2
서비스업 외국인 직접투자	72.4	23.8	93.8

자료 : JETRO, 지식경제부.

- 일본의 일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인 1992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39.3%, 서비스업 60.6%로 역전되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4년간 300배가 증가함
 - 이는 일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필요함을 시사
 - 금액 기준으로 제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88년 24억 달러에서 1992년 16억 달러로 감소
 - 반면에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8억 1,800만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4년간 3배 증가함

< 일본의 2만 달러와 3만 달러 진입시점의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구성 >

(단위 : 백만 달러, %)

	2만달러 진입시점		3만달러 진입시점		증가율	비중 차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외국인 직접투자	2,425	74.8	1,609	39.4	-9.7	-35.4
서비스업 외국인 직접투자	818	25.2	2,476	60.6	31.9	35.4

자료 : JETRO, 지식경제부.

○ 서비스 산업내 업종별 비교

- 일본의 일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승한 시기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은 도소매와 금융보험, 사업서비스업이 견인
 - 도소매업의 경우 1988년 4억 5,400만 달러(14%)에서 1992년 11억 9,400만 달러(29%)로 금액대비 3배, 비중대비 2배 상승
 -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988년 1억 5,200만 달러(4.5%)에서 1992년 8억 2,300만 달러(20%)로 금액대비 5.4배 비중대비 4배 상승
 - 금융보험업의 경우 1988년 6,100만 달러(1.8%)에서 1992년 1억 4,700만 달러(3.5%)로 상승

< 일본의 2만 달러와 3만 달러 진입시점의 서비스업 내 외국인 직접투자 구성 >

(단위 : 백만 달러, %)

	1988		1992		증가율	비중차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도소매	454	14.0	1,194	29.2	27.3	15.2
금융보험	61	1.9	147	3.6	24.6	1.7
사업서비스	152	4.7	823	20.2	52.5	15.5

자료 : JETRO.

- 일본의 서비스 업종별 특징을 한국의 일인당 GNI 2만 달러 시점인 2007년과 비교해 보면 금융보험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높음
 - 도소매업의 비중은 17%로 일본과 유사하고,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11% 다소 차이가 있음
 -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22%로 1988년 일본의 1.8%는 물론 3만 달러 시점인 1992년의 3.5% 보다 6배 이상 높음
 -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투자 규제완화 등으로 한국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일간 2만 달러 진입시점의 서비스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구성 비교 >

(단위 : 백만 달러, %, %p)

	한국(2007)		일본(1988)		차이 (한국-일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도소매	1,827	17.4	454	14.0	3.4
금융보험	2,293	21.8	61	1.9	19.9
사업서비스	1,107	10.5	152	4.7	5.8
통신	37	0.3	40	1.2	-0.9
운송	564	5.4	2	0.1	5.3
기타	1,784	23.4	109	3.4	13.6

자료 : JETRO, 지식경제부.

- 한편, 한국과 일본 모두 진입규제가 강하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는 통신업 등 고부가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
 - 통신업의 경우 일본 1988년 비중은 1.2% 였으며 한국의 2007년 비중은 0.3%이며, 그 이전과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음
 - 이는 통신서비스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약이 크고, 양국모두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3. 정책적 시사점

- (투자 유치 대상 다양화)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선진국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자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미국, EU, 일본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중동, 싱가포르 등 신흥자본국의 여유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해야함
 - 2007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국 22.3%, EU 41.2%, 일본 9.4% 등 선진 3개 지역이 72.9%를 차지하고 있으나 내년도 동반 마이너스 성장으로 투자여력 급감
 - 따라서 여유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높은 싱가포르와 UAE, 사우디, 쿠웨이트 등으로 투자 유치 대상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
- (서비스업에 특화된 유인책 보장)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기존의 각종 지원 대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분리하여 운영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대책, 임대료 감면 기준 등이 제조업 또는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
 - 서비스 부문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대책은 제조업에 대한 지원책을 기계적으로 축소 적용한 것에 불과
 - 외국인투자 기업이 부담하는 임대료의 감면 기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에만 가장 높은 혜택을 제공
 - 1999년 1/4분기부터 2007년 2/4분기까지에 대한 연구는 서비스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설비투자와 고용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줌
 - 설비투자에 있어서 1%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였을 경우 제조업에서 0.04% 그러나 서비스업에서는 0.1% 늘어난 것으로 추정

- 고용에서는 1%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였을 경우 제조업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못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0.007%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

<설비투자와 고용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

	설비투자에 대한 탄성치	고용에 대한 탄성치
제조업	0.04	-
서비스업	0.10	0.007

자료: 『외국인직접투자가 설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08년 4월.

- 다만 금융보험업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고 역차별 하지 않는 방법론이 전제되어야 함
- (외국인 투자 업종 제한 완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해 외국인 투자 제외·제한 업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외국인 투자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존재
 -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는 업종들은 거의 대부분이 행정이나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 자원·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의 주요 전략 기간산업과 국가 고유의 업무인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제한될 필요가 존재
 - 그러나 나머지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미래 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을 대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투자 허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 (패키지형 외국인 투자 유도 정책 전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 인프라, 노사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을 의미하는 패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

- 외국인 투자 관련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강화, 투자 이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신속한 문제점 해결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지원청'(假稱)의 설립을 고려
 - 또한 외국인 투자 전용 특구 조성 계획을 확대하는 동시에 특구 내 법률, 조세, 회계 등의 경영 지원 서비스와 교육, 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법치주의 확립 등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의 확립과 실질적 재취업 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 의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로 고용 부문에서의 투자 저해 요인들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의 역차별 완화)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이 공정한 게임의 규칙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자본을 외국 자본과 역차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금산분리, 적대적 M&A 방어책 등 글로벌 경쟁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역차별 규제를 개선
 - 이러한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부적합한 출총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 등의 노력이 필요
 - 또한 지자체들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지역 선 지정, 후 유치', '법인세 7년 감면', '공장부지 무상임대' 등의 무리한 지원책을 남발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제고

이만용 연구위원 (3669-4123, danieli@hri.co.kr)

예상한 연구위원 (3669-4181, syeahk@hri.co.kr)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P)	2008(E)	2009(E)	상반기	하반기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5.0	4.1	3.1	2.2	3.8	
	최종소비지출 (%)	4.7	2.3	1.1	0.9	1.2	
	민간소비 (%)	4.5	2.0	0.8	0.7	0.9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2.1	1.3	2.9	
	건설투자 (%)	1.2	-1.4	2.2	1.5	2.8	
	설비투자 (%)	7.6	1.5	2.3	1.2	3.3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	60	-59.3	25	15	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47	-85	54	20	34
		수출 (억 \$)	3,715	4,383	4,558	2,194	2,364
		증가율 (%)	(14.1)	(18.0)	(4.0)	(2.5)	(5.4)
		수입 (억 \$)	3,568	4,468	4,504	2,174	2,330
		증가율 (%)	(15.3)	(25.2)	(0.8)	(-1.5)	(3.1)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3.3			
	실업률 (%)	3.2	3.3	3.5			
	국제유가(Dubai, \$)	68	95	60			
금 용	원/\$ 환율 (평균, 원)	929.0	1,100.0	1,200.0			
	국고채금리 (3년만기, 평균 %)	5.23	5.3	4.8			